

칼럼

# 책보다 사람! 착함을 넘어 절실함으로\*



이 덕 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oliblove@hanmail.net

책보다 사람! 일보다 소통! 통계보다 만남!

김선생님께,

선생님, 이제 한달간의 사서교사 실습 기간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나왔을때 선생님이 잔뜩 긴장하면서 묻던 말들이 생각나네요. 무슨 일들을 하게 되지요? 수업도 하나요? 담임 업무도 합니까?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이죠? 등등.

그때 제가 드렸던 말이 생각나시나요? 선생님은 앞으로 한달간 사서실습이 아니라, 도서관실습이 아니라, 바로 교생실습을 하는 것이라고, 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하면 성공이라고, 교생 환송식때 교생선생님과의 헤어짐을 아이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사서교사를 교생선생님으로 바꾸어달라는 말이 아이들로부터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도서관 업무보다 아이들에 대한 공부와 탐구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갖고 오시라고.

참 힘든 일이죠. 차라리 목표가 책 500권 수서, 1,000권 정리, 대출 매일 300권, 배열 300권, 참고봉사 5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도서관엔 이렇게 수치와 통계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지요. 바로 학교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사서교사와 학생이 맺어지고 주고받는 관계들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아이들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정서적으로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수업 몇 시간,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의 관계고 그것을 수치와 수량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학생과의 만남과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현장의 사서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통 소개할게요.

사서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쉽게 말 못하는 마음의 병을 누구에게도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왠지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선생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돼서 참 다행이

\* 이 글은 현직 사서교사인 필자가 사서교사로 교생실습에 참여한 김선생에게 쓴 편지글의 형식을 빌었다.

리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방방곡곡 알아봐 주시고 책까지 추천해 주셨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많은 걸 비란 건 아니었거든요. 무턱대고 한 대가도 없는 요청에 선생님이 소홀하셨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전해요.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선생님은 우리학교의 재산인 것 같아요. 치료에 집중해서 빨리 병이 낫을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이 신경 써 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선생님.

2008년 9월 19일 ○○ 드림

이 학생은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기도를 했던 학생인데 이런 사서교사의 도움과, 평소 삶과 치료의 의지를 다지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나라로 갔네요. 그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학생을 좀 더 잘 도왔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들을 하지요. 업무에 진도에 공부에 집중하느라 이 학생을 지나쳤던 많은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떠오르죠.

사서교사가 돼서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학생 한명 한명의 얼굴이 소중하게 떠오릅니다. 그 학생들이 도서관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사서교사를 만나서 무엇이 좋을 수 있었을까? 각박하고 쫓기는 삶이지만 좀 더 세상의 따스함을, 관계의 소중함을,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를 사서교사 또한 업무에 치이는 삶에서도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 ‘착한 사서 콤플렉스’ 를 벗고 절실함을 표현하세요

김선생님, 한달동안 선생님을 지도했던 관계와 만남과 소통을 가진 선배 사서로서 당부를 드린다면 학교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관중에 가시더라도 제가 느끼는 선후배 사서들의 ‘착한 사서 콤플렉스’ 를 극복하세요. 도서관에는 정월 동결을 넘어 감축으로, 민간위탁, 도서관 명칭변경 등 굵직굵직한 도서관계의 문제들이 많고, 사서의 위상이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흔들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계나 사서의 드러나는 집단적 의사표출이 적은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사서 콤플렉스’ 내지는 ‘착한 도서관 콤플렉스’ 가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정치인들이나 소위 힘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서들의 양전함이나 착함, 나아가 공무원 본연의 일상적 업무에 우선 충실한 우리 삶의 태도나 분위기를 그들은 우리가 절박할 정도의 문제는 갖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판단하더군요. 정말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절실하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국회 앞이나 힘있는 기관 앞에는 어김없이 여러 가지 억울함과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의 시위들이 때론 극렬하고 또는 끈질긴 방법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니까요.

요즘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교사들의 마음은 우리의 관계를 가졌던 학생들이, 혹시 사서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갔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학생들이나 후배 중에 “나도 선생님같이 사서교사가 될래요” 하고 사서교사의 꿈을 함께 가졌던 학생들이 그 동안의 노력과 공부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교사정원 동결방침에 좌절하는 것을 볼 때 함께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그 후배나 학생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절망에 몸부리치지 않을 다른 인생의 길을 평탄히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자책감마저 들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거리에서라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실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를 설득하기 힘들죠. 우리 도서관계의 문제들을 갖고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거리에서도 만나자구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왔던 관계와 만남과 소통의 연장선에서 하는 도서관봉사의 연장이자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성실히 지키는 소박한 실천이라고 봅니다. (☺)